



07-43 (통권 274호)

2007.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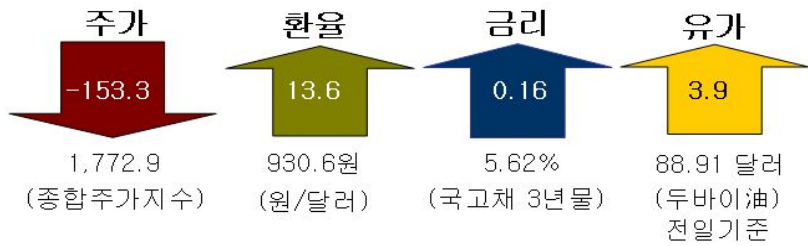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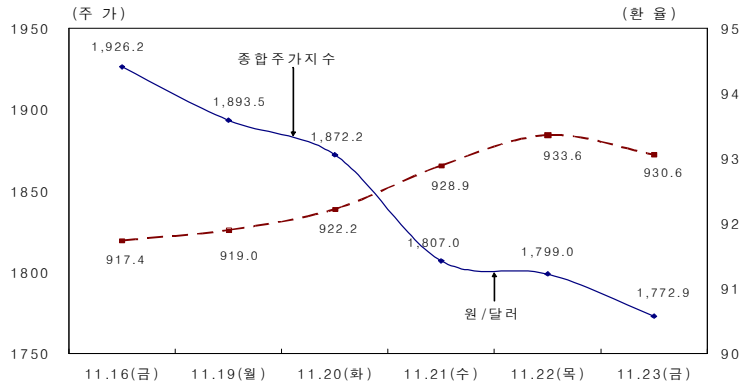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자원 현황 분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6~11.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자원 현황 분석	1
월간 경제 동향	27
□ 실물 부문 : 국내물가 불안한 양상	27
□ 금융 부문 : 주가 폭락 속 원화 환율 급등	2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상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동북아 연구센터 김영근 연구위원 (3669-4112, kimyg@hri.co.kr)

Executive Summary

□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자원 현황 분석

I. 국제사회의 ODA 자원 유형별 규모

(개관) 최근 북핵 비핵화 2단계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된 북미 금융실무그룹회의(11. 19~20)에서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국제금융 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북한은 BDA 해결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한 점을 감안,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향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라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조달 가능한 원조 자원 현황을 살펴보고, 자금 공여 기관 및 자원과 자금 수혜국가의 조달 사례를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원조 자원 유형) 국제사회의 원조 자원으로는 크게 공적자본과 민간자본으로 구분된다. 우선, 공적자본은 양허성 용자 차관 등 유 무상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 공적자본은 다시 국제기구 가입 前 조달 가능한 자원과 가입 後 조달 가능한 자원으로 나뉜다. 국제기구 가입 前은 주로 특별신탁기금 조성을 통한 비금융 지원과 기술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 가입 後 조달 가능한 자원은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IDA),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무역기구(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자금도 들 수 있다. 한편, 국제 민간자금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NGO에 의한 무상증여가 대표적이다.

II.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하여 조달 가능한 국제 자원

1. 자금 공여 기관(국가)별 자원

(국제기구 가입 前 공적원조 자원) 먼저, 국제기구 가입 前에 이루어진 공적원조로는 팔레스타인 신탁기금(4.1억 달러), 동티모르 신탁기금(8억 달러) 등의 조달 사례가 있으며, 북한도 이와 유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 가입 後 국제기구의 공적원조 자원) 국제기구 가입 後 공적원조 자원으로는 먼저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 경제개발협회(IDA)가 196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8개국 1,700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6년 59개국 16개의 새로운 사업에 95억 달러(1국가당 평균 1.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특히 인도의 경우, 경제개발 명목으로 6.8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베트남에는 99억 달러와 중국에 184억 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중간 소득 국가(인당 GNI 925~5,445달러) 및 신용을

가진 빈곤국가를 지원하며, 150억(한국)~300억 달러(중국)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였다. IMF는 경제재건 금융을 통해 중국(1986년~2004년)에 6.8억 달러, 베트남(1989년~2004년)에 3.53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ADB)은 현재까지 대부 총액은 2003년 현재 61억 달러로 1국가 당 평균 6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WTO는 DDA Global Trust Fund를 통해 최대 0.1억 달러 등의 지원 사례가 있다.

다만, 국제기구간의 병행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 後의 조달 가능한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세계은행 그룹인 IDA와 IBRD의 자금 공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별 ODA 공여 자금 규모) 주요 국가별 지원을 통한 재원 조달은 선례로 보아 국제기구와 거의 중복되지 않아 양측을 병행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별 지원의 경우 양국 간 교섭을 통해서 동시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발·빈곤 및 경제 정치, 군사 부문의 지원 합계는 연평균 (1985년~2005년) 163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에 1.28억 달러, 베트남 57.8억 달러, 이스라엘 319억 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남한에 대한 전후배상금(대북 경제지원)으로 8억 달러 (2007년 물가수준으로 환산시 41억 달러)와 중국의 ODA 재원으로 약 200억 달러가 지원된 사례가 있다. 다만, ODA 형태로 지원될 일본의 대북 지원이 전후 배상금과 병행하여 지원될 가능성은 낮다.

EU의 경우, 1990년~2005년의 아시아 지원 총액은 313억 달러(연평균 19.6억 달러)이며, 베트남 지원액은 18.3억 달러(약 6%), 중국 지원액은 56억 달러(약 18%)에 달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자금으로 지원할 총액을 894억 달러로 잡고 있다.

2. 자금 수혜국가의 조달 사례

먼저, **중국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총 4,069억 달러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대외 차관은 35%(양자간 공공차관이 8%, 다자간 공공차관이 6%, 상업차관이 17%)로 1,424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나머지 65%를 FDI를 통해 조달하였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 총 841.5억 달러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대외 차관은 약 30%로 237.5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나머지 70%를 FDI를 통해 조달하였다.

한편, 1961년~2006년까지 **캄보디아는** 44.3억 달러, **라오스는** 57.5억 달러를 국제원조 재원으로 조달하였다.

3. 북한의 국제원조 재원 조달 현황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예상 분야

먼저, 북한에 대한 국제원조 조달 현황을 보면, 북한의 공적원조 조달액(2000~2005년)은 다자간 기구를 통하여 2억 3,322만 달러와 국가별 지원 특히 미국을 통해 5억 900만 달러로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북한의 북미·북일 관계의 정체와 국제무역·금융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제약 요건뿐만 아니라, 국제지원 유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제 정비의 미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예상 분야를 보면, 국제기구를 통해 조달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국제 자금 조달의 단계별 추진방안 및 선결 조건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기는 한경제 회생의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과정으로, 국제기구 가입 前의 다자간 특별신탁기금의 원조 재원 조달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 북한 경제 활성화기는 북한 경제 안정과 초기 활성화 과정으로,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가입 後, 세계은행 (IDA) 과 선진국의 공적원조 재원 조달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3단계 북한 경제발전 가속화기는 향상된 북한의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세계은행(IBRD)과 선진국의 공적원조 확대 및 외국인직접투자 (FDI)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선결 조건) 첫째, 북한은 국제 무역(WTO)·금융(IMF)체제에 가입하여 세계 시장 질서에 편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여타 선진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도 북핵 합의 이행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베트남의 성공요인이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북한 당국은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국제 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의 지원 조건이 과거 안보 중심에서 '국제 규범 준수'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개발원조 및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행동 준칙의 능력을 증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북한은 보다 많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재원 사용처, 전략적 목표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경험 활성화 등 재원 화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은 지원 공여기관(국가)의 사후 검증 및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조 과정에서 공여국의 평가 결과, 기존 공여된 재원을 활용한 경제 실적 개선 효과가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계속 지원 또는 증액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규범, 행동 준칙을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자원 현황 분석

I.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자원 유형별 규모

1. 개관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전제 조건 및 자원 조달 규모를 비롯해, 세계 주요 원조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특히 최근 북미 금융실무그룹회의(11. 19~20)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국제금융 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되었음
 - 북한은 BDA 해결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한 점을 감안,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번 회담은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진입에 영향을 미쳐온 국제금융계의 공인된 관행과 문제들을 북한 측에 숙지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복귀에 따라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조달 가능한 원조 자원 현황을 살펴보고, 자금 공여 기관(국가)별 자원과 자금 수혜국가의 조달 사례를 검토·분석하고자 함
-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전제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UN 통계 509 달러(한국은행 추정 1,108 달러)로 추산될 정도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식량 및 생필품 자급도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기아 문제 해소 및 남북 통일비용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 개발과 자원 조달 문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 특히, 북한은 저소득 국가이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국제경제체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2. 국제사회의 원조 자원 유형

○ 자원 유형: 국제사회의 원조 자원으로는 크게 공적자본과 민간자본으로 구분

- 공적자본은 유·무상의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국제 민간자본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주류를 이룸

- 국제 지원의 대부분은 양허성 융자·차관 등의 ODA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¹⁾
- 국제 공적자본은 국제기구 가입 前 조달 가능한 자원과 가입 後 조달 가능한 자원으로 나뉨
- 국제기구 가입 前은 주로 특별신탁기금 조성을 통한 비금융 지원과 기술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짐
- 국제기구 가입 後 조달 가능한 자원은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IDA),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 (DDA) Global Trust Fund(세계신탁기금)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등이 대표적임

- 또한,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자금도 들 수 있음

- 한편, 국제 민간자금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NGO에 의한 무상증여가 대표적임

1)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3요소를 고려하여,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함.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 또는 (ODA) 차관이라고 부름. ODA는 '정부개발원조'로도 통용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조달 가능 자원 유형 >

구분	수단	협력 유형	주요 대상 사업 및 내용	
국제사회	공적자본	무상	- 시장경제체제 이행국 및 선진 개도국에 의한 지원 (ODA 프로그램과 동일)	
		유상	- 국제기관(WTO, 세계은행 IDA, IMF, IBRD, ADB)에 의한 융자·차관 등 - 공업 기반시설(철도·도로, 수자원, 농업, 전력) 개발	
		유상	-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민간자본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상	- 직접투자, 양자간 증권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차관 - 기업 설비투자 및 일부 기반시설(통신, 전력)
		NGO에 의한 증여	무상	- 민간 원조단체에 대한 증여(비정부 기금)

II.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하여 조달 가능한 국제원조 재원

1. 자금 공여 기관(국가)별 재원

(1) 국제기구 가입 前 공적원조 재원

○ (국제기구 가입 前) 팔레스타인 신탁기금(4.1억 달러), 동티모르 신탁기금(8억 달러) 등을 통해 조달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도 이와 유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세계은행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4.1억 달러)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억 5천만 달러) 지역의 개발 복구를 위해 특별기금이 설립된 전례가 있음

· 다만,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외교적 결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가 관건임

< 국제기구 가입 前 세계은행의 지원 현황 >

기 금	내 용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 개발 복구 명목으로 4억 1,035만 달러 지원(1993년~2000년 말) - 특히, 2000년 5월 북한과 함께 테러지원국에 오른 이란이 세계은행에서 2억 3천만 달러의 신규자금 지원 획득
동티모르 신탁기금	- 8억 달러 지원(1999년~2003년, 10억 달러 지원 약속) - 세계은행, EU,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26개국 이상이 참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신탁기금	- 1994년 세계은행은 동지역의 개발복구를 위한 지원 시작 - 1995년 EU집행위는 6억 달러 자금지원을 약속하였고, 1996년 세계은행이 1억 5,000만 달러로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개발 복구 재원으로 사용
코소보 특별신탁기금	- 1999년 11월 코소보 경제 재건을 위해 2,500만 달러가 이익잉여금으로 조성됨

(2) 국제기구 가입 後 국제기구의 공적원조 재원

- (국제기구 가입 後) 국제기구간의 병행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IDA는 베트남(약 99억 달러)과 중국(184억 달러) 등에 지원하였음

① IDA(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

- 세계은행(World Bank)의 산하그룹인 경제개발협회(IDA)는 99억~184억 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인구규모 및 소득기준으로 북한에 4,600만~1억 3,8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공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 경제개발협회(IDA) 지원금은 최빈국(2006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965달러 이하)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상자금에 가까운 기금으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임(2006년 북한 GNI는 UN통계 기준으로 509 달러)³⁾
 - IDA는 196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8개국 1,700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6년 59개국 167개의 새로운 사업에 95억 달러(1국가당 평균 1.6억 달러)를 지원함. 특히 인도의 경우, 경제개발 명목으로 6억 8,660만 달러를 지원받음
 - IDA는 현재까지 경제실적이 좋은 상위 20% 국가에는 국민 1인당 평균 12 달러를, 하위 20% 국가에는 평균 2.4 달러를 지원⁴⁾

2) IDA와 IBRD의 지원 조건은 서로 다른 1인당 GNP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두 기구의 동시 지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다자간 ODA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크게 UN기구, 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은행 및 EC 집행위원회 등 네 그룹으로 구분. 그 중 ODA 규모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은행 그룹이며 그 중 핵심 기구가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임. 저소득국의 개발프로젝트에 필요한 장기금융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IDA는 DAC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ODA의 대부분을 차지함

4) IDA는 1999년부터 실적 기준 배분제도(PBA: Performance-based Allocation System)를 바탕으로 지원액을 결정·운용하고 있음. 이는 경제 실적이 좋은 나라에게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융자 수혜국의 정책 및 제도 개혁에 유인을 부여하는 한편, 자원 배분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PBA의 기본틀은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와 포트폴리오 실적(PR: Portfolio Rating)으로 가중평균하고 그 결과를 1~6 사이의 점수로 표시하여 국가별 성과평가(CPR: Country Portfolio Rating)

- 북한은 2004년 경제실적으로 볼 때, 국민 1인당 최소 2~3 달러 정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급속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원받게 될 경우 국민 1인당 5~6 달러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IDA는 2,300만 인구인 북한에 4,600만~1억 3,800만 달러의 재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⁵⁾
- 실제 IDA 지원 사례(1990년~2005년)를 살펴보면 베트남 지원액은 99.2억 달러, 중국 지원액은 184.4억 달러, 아시아 총 지원액은 1,075.4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IDA 자금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의 12개월 동안 교육, 보건, 사회 안전망, 물 공급과 위생에 36%, 법, 사법, 공적 행정에 23%, 공업에 18%, 하부구조에 14%, 농업과 농촌개발에 8%가 사용됨

② IBRD(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150억(한국)~300억 달러(중국)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였음⁶⁾
 - IBRD 차관은 중간 소득 국가(1인당 GNI 925~5,445 달러) 및 신용을 가진 빈곤국가를 지원하며, 중국의 예를 보면 300억 달러가, 한국의 경우는 150억 달러가 지원됨
 -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중장기적으로는 IBRD를 통해 재원 조달(150억 ~ 300억 달러)을 도모하는 가능성도 있으나, 실질적인 재원 조달 규모는 IDA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총 99억~184억 달러 규모의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⁷⁾

를 함

- 5) IDA가 한 국가에 지원 가능한 양허성 원조 자금의 1인당 최대 20달러임
- 6) IDA와 IBRD의 지원 조건은 서로 다른 1인당 GNP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두 기구의 동시 지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7) 다만, IBRD 차관은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확실하다고 간주되는 국가에만 제공되는 재원으로, 북한은 외부 금융환경에 취약하고 상당한 수준의 외채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BRD로부터 단기간내에 차관을 받을 수 대상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북한 경제 개발 가속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판단됨. 윤대규·임을 출 편저,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울 아카데미, 2006년, p.193

③ IMF(국제통화기금)

- IMF는 경제재건 금융을 통해 중국 6.8억 달러, 베트남에 약 3.5억 달러를 지원한 사례로 볼 때 북한도 이와 유사한 재원을 조달 가능할 것으로 추정
 - IMF의 지원 사례로는, 중국(1986년~2004년)에 6.8억 달러⁸⁾, 베트남(1989년~2004년)에 3.53억 달러를 지원하였음⁹⁾
 - IMF 지원은 2004년 기준으로 교육·보건 등의 사회적 및 행정적 인프라 부문(양자간 37.3%, 다자간 32.8%)과 교통·통신 등의 경제적 인프라(양자간 16.7%, 다자간 24.7%)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빈곤축소·성장 지원 금융(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의 연평균 지원액은 2억 4,900만 달러(전체 다자간 원조 중 4%)으로 북한 또한 2.5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¹⁰⁾

< IMF의 대중국·베트남 ODA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중국	-36.37	-80.05	-83.19	-79.34	-83.99	-42.42				
베트남				-8.98	-4.75	-9.58		-60.2	86.47	91.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액
중국						-36.37	-80.05	-83.19	-79.34	-684.31
베트남	175.37				-15.93				-8.98	353.44*

주: * IMF에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 총액임 자료: OECD Data(<http://www.oecd.org/statsportal/>)

- 8) IMF의 대중 ODA 지원액은 IMF의 유상지원의 정확한 액수가 집계되고 있지 않아 IMF에 상환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대체하였음. 실제 IMF의 중국 지원액은 상환액 합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9) 실제 IMF의 베트남 지원액은 중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환액 합산(1.08억 달러)을 고려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또한 베트남은 IMF Trust Fund(신탁기금)으로부터 0.32억(1978년), 0.41억(1981년) 0.66억(1982년) 달러를 지원받아 총 1.4억 달러를 지원받았음
- 10) 한국의 경우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 ‘확대 구조조정 금융(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ESAF)’ 명목으로, 195억 달러를 지원받았음. 다만, IMF 지원은 다른 국제기구의 지원과는 달리, 단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IMF 차관은 상환기간 5년에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차관 수원국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이행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함. 이에 따라 북한은 PRGF라는 저소득국가의 경제정책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여에 주력해야 할 것임. 윤대규·임을출 편저(2006년) 『전게서』 p.262

④ ADB(아시아개발은행)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국가당 평균 6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 ADB의 현재까지 대부 총액은 2003년 현재 61억 달러, 2003년의 경우에는 1국가 평균 6억 달러(대부액 1.8억 달러와 무상 4.8억 달러)임을 볼 때, 대부 지원도 6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ADB의 중점 지원 사항은 ① 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가격 기능과 경쟁 시스템의 도입, ② 내륙 지역의 빈곤 축소를 위한 지역 경제 성장지원, ③ 환경 보호와 자연자원의 관리 강화 지원

⑤ WTO(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체제의 재원 활용

- 세계무역기구(WTO)의 DDA¹¹⁾ Global Trust Fund(세계신탁기금)의 對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 활용기금은 총 1,000만 달러 규모

- 2002년에 설립된 WTO 세계신탁기금의 총액은 7,728만 달러(2002~2005년)로 현재 기금 마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다만, 북한이 개도국 기술재원 전액을 지원받기는 어려우나, 베트남의 사례로 보아 최소 1,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3) 국가별 조달 가능 재원 규모

○ 국가별 지원을 통한 재원 조달 사례로는 미국, 일본, EU 등이 대표적으로 총 58억~447.9억 달러를 지원

- 미국 : 개발·빈곤 및 경제·정치, 군사 부문의 지원 합계는 연평균(1985년~2005년) 163억 달러로, 사례로는 중국 1.28억 달러, 베트남 57.8억 달러, 이스라엘 319억 달러를 지원
 - 미국은 원조금액면에서 DAC¹²⁾회원국 중 최대 원조 공여국임¹³⁾

11)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함. 즉 DDA는 뉴라운드 공식명칭임

-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 질서 참여를 독려하고, 마셜플랜, OECD 및 개발원조위원회(DAC)창설 등을 통해 '세계개발협력'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휴를 주도¹⁴⁾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원조정책은 크게 3 시기의 전환기가 있었음. 첫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실시된 마셜플랜, 두 번째가 1961년의 USAID¹⁵⁾의 설립, 세 번째로는 2002년에 발표한 MCA¹⁶⁾의 설립
- MCA 적격국가 선정기준: ①각국의 소득수준, ②被 원조국의 퍼포먼스
- 다만, 미국은 북한인권법에서 '비인도적 원조'(즉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할 경우, 북한 주민의 기본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개선조치를 조건부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선결 과제임
- 지원 사례 : 이스라엘 지원액은 319억 달러(1985년~2005년), 베트남 지원액은 57.8억 달러(1960년~2005년), 중국 지원액은 1.28억 달러(1990년~2005년)
- 미국의 대북 지원 가능액(연평균 163억 달러)은 극히 저조한 중국 사례보다는 베트남 사례인 최소 58억 달러~최고 319억 달러(이스라엘의 사례)에 준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¹⁷⁾

-
- 1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13) 2002년의 몬트레이 개발금융지원 UN회의(Monterrey U.N. Conference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부시대통령은 3년간 정부개발원조(ODA) 규모를 50퍼센트 확대할 것을 제안함. 2000년의 100억 달러로 시작한 미국은 공식적인 개발지원규모를 163억 달러로 증액함으로써 몬트레이 회의에서 약속한 지원규모를 2003년에 넘어섬. http://korea.usembassy.gov/uploads/images/MAAFmy9WN-Fw7GcJ1opfufw/Commitment_to_International_Development.pdf (2007년 11월 2일)
 - 14) 미국의 원조를 크게 대별하면 3그룹으로, 비정치적 형태로서의 인도주의적 식량원조(humanitarian food aid)와 경제개발원조(economic development aid), 그리고 안보주의(security assistance)로 구분됨
 - 15)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미국국제개발청, 미국부통령의 직접적인 관할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미국의 해외경제원조 및 전세계 인류복지 향상 등 대개도국 원조사업을 수행. MCA 설립 이전까지는 미국 ODA의 50% 이상을 원조하고 사실상 주도함
 - 16) 밀레니엄챌린지기금(MCA: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 공정하게 통치행위를 하고 국민에 투자하며 경제자유를 장려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 17) 미국, 일본, EU 이외에 중국은 현재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유럽 기업들도 '재조선유럽동맹인협회'를 설립하고, 평양무역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대북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ODA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아시아 총액	2189	2360	2618	2222	2798	1068	2809	344
대 중국	-	-	-	-	-	-	-	-
대 베트남	2	1	2	2	10	1	-	48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아시아 총액	512.4	1674.9	1380.8	2012	2486.2	4560.5	5826.1	14652.5
대 중국	0.4	38.2	1.57	4.84	16.99	25.6	21.49	19.62
대 베트남	-9.61	-0.15	6.79	8.67	14.65	33.7	30.49	27.09

1990년~2005년 16년간 아시아 지원 총액	49513.6	아시아 지원 연평균	3094.6
1990년~2005년 16년간 대 중국 지원 총액	1.288	중국 지원 연평균	8.05
1990년~2005년 16년간 대 베트남 지원 총액	1.777	베트남 지원 연평균	11.10

주: 베트남의 경우, 1960년~1989년 30년간 56.03억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음

자료: OECD Data(<http://www.oecd.org/statsportal/>)

- 일본 : 남한에 대한 전후배상금으로 8억 달러(2007년 물가수준으로 환산 시 41억 달러)와 중국의 ODA 재원으로 약 200억 달러가 지원된 사례가 있음

· 북일 국교정상화 청구권(대북 경제지원) 금액은 한일 국교정상화 청구권 자금(8억 달러)을 현재 가치액(단순 물가지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4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¹⁸⁾

18)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청구권 자금이 처음 들어온 196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2,000만~5,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며, 당시 물가수준과 비교해 2007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41억 달러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현재 가치액 환산 방법에 관해서는 GDP디플레이터를 이용. 1966년 수치는 23.505, 가장 최근의 수치인 2007년은 119.534로 약 5배의 가치) <http://www.economagic.com/em-cgi/data.exe/fedstl/gdpdef+1> 참조

- 한국은 일본에서 총 8억 달러(1966~1975년)의 유·무상자금을 받음(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 등 총 5억 달러의 정부 지원과 민간 차원의 상업차관 3억 달러)¹⁹⁾
 - 또한 일본의 대중국 ODA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속성 차관으로 일본의 대북 지원은 최소한 중국 사례(200억 달러)의 20%(40억 달러)~30%(6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만, ODA 형태로 지원될 일본의 대북 지원이 전후 배상금과 병행하여 지원될 가능성은 낮으며, ODA 규모를 늘리는 형태로 전후 배상금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일본의 대북 지원이 가능액은 최소 41억 달러(청구권 자금 상당)~최고 100억 달러(약 41억 달러+중국 사례 30%인 약 60억 달러)로 추정됨
- EU : 1990년~2005년의 아시아 지원 총액은 313억 달러(연평균 19.6억 달러)이며, 베트남 지원액은 18.3억 달러(약 6%), 중국 지원액은 56억 달러(약 18%)에 달하고 있음
- 개별 회원국별 공적 개발 자금 규모를 2015년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7%(UN 목표치)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 경우 2015년까지 657억 유로(894억 달러)의 공적개발 자금이 추정됨
 - 지원 사례(1990년~2005년) : 아시아 지원 총액은 313억 달러, 베트남 지원액은 18.3억 달러(약 6%), 중국 지원액은 56억 달러(약 18%)임
 - 특히, EU의 아시아 지원 비율(2005년 기준 18%)을 적용할 경우, 대 아시아 총 지원액은 118억 유로(160억 달러)이며, 이 중 대북 지원 가능 규모는 최소 6% 수준일 경우에는 9.6억 달러, 최대 18% 수준일 경우에는 28.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유럽개발기금(EDF) 자금의 2003~2007년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 28억 유로(교통), 15억 유로(거시 경제적 지원), 13억 유로(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 농업(6.2억 유로), 교육(5.1억 유로) 등의 순으로 원조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
 - EU의 대외 원조 분야는 대규모 물량 지원과 건설 사업 등과 같은 선심 사업 보다는 현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은 건설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SOC 및 서비스 확충이 우선될 수 있음

19)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상업차관의 사용처는 정부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밝히지 않았음 다만, 정부차관 사용 내역에 관해서는 표 <정부가 밝힌 청구권자금 사용처>를 참조.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 『청구권자금백서』(재정경제부 문서보관소, 1976년

< EU의 ODA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아시아 총액	3945.4	4653.5	4079.8	3780.8	3839.4	4052.9	3702.6	3330.7
대 중국	627.95	509.12	854.8	699.83	657.02	965.38	729.84	561.08
대 베트남	102.27	122.8	176.98	168.6	440.96	319.07	275.43	228.25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아시아 총액	3263.4	2990.3	2888.7	3335.9	3549.9	4137.1	4593.1	12388.5
대 중국	486.33	486.39	405.83	322.34	286.87	268.37	501.95	519.73
대 베트남	262.08	268.25	246.58	282.54	279.51	361.77	429.53	506.19

1990년~2005년 16년간 아시아 지원 총액	31385.06	아시아 지원 연평균	1961.57
1990년~2005년 16년간 대 중국 지원 총액	5605.02	중국 지원 연평균	350.31
1990년~2005년 16년간 대 베트남 지원 총액	1834.36	베트남 지원 연평균	114.65

자료: OECD Data(<http://www.oecd.org/statsportal/>)

2. 자금 수혜국가의 조달 사례

○ 중국

-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69억 달러를 도입하였으며, 이중 대외 차관은 35%(양자간 공공차관이 8%, 다자간 공공차관이 6%, 상업차관이 17%)로 1,424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나머지 65%를 FDI를 통해 조달함
 - 중국은 1980년 세계은행에 가입 후 1982년 대학개발프로젝트부터 지원 받기 시작하여 98년까지 IDA차관 84억 달러(농업부문 54%, 교육보건 21.7%, 상·하수도 정비 12.2% 등에 투자)와 IBRD차관 94억 달러(운송 분야 31%, 에너지 26% 등에 투자)를 도입함
 - 국제기구에서 1979~98년까지 도입한 공공차관은 243억 6,700만 달러에 이르고, 이는 주로 긴급하게 개발이 필요한 기초부문과 취약한 경제 환경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고, 개혁·개발 초기 지대한 공헌
 - ADB에 1983년 가입한 이후 1988-99년까지 38억 3,760만 달러를 도입하여 운송 분야에 46.1%, 에너지 부문 19.2%, 사회설비 및 금융부문 13.2%에 투자
 - 일본은 중국 ODA의 최대 수여국으로 98년까지 총액 216억 3,700만 달러로 61.3%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전(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았음
 - 체제전환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 공업지역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은 인프라와 설비 투자 그리고 기술 교육 및 훈련 부문으로 구분됨
 - 개발 초기에는 인프라 및 교육·훈련 부문에 지원 차원의 수혜성 협력이, 그리고 개발 후기에는 설비 투자부문에 민간 기업 차원의 호혜성 협력이 중심이 되어 왔음²⁰⁾

20) 베트남은 국제공적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친서방 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베트남의 국제공적자본 조달은 개발 초기의 친동구권 시기(1954년~1988년) 및 과도기(1989년~1992

- **친서방 정책 시기(1993년 이후)**에는 미국 경제제재조치 해제(1993년) 및 지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급증하고,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등의 성과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3년 2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²¹⁾
 - 베트남은 1988~2006년까지 총 182억 달러 규모의 ODA를 조달하였음
 - 특히, 2003년 국제공적자본 조달이 45%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은행의 '빈곤감소지원자금(PRSC: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1억 9,000만 달러 지원 개시가 가장 큰 원인임
 - 개혁·개방 이후 경제 개발 과정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중국은 총 외자의 65%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베트남도 1988~2006년까지 6,813건에 604억 달러(70% 수준)를 도입하였음
 - 1996년 이후 국제공적자본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은 전력 및 용수, 교통·통신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 부분으로 전체 자금의 41~49% 가량 투자

○ 기타: 캄보디아, 라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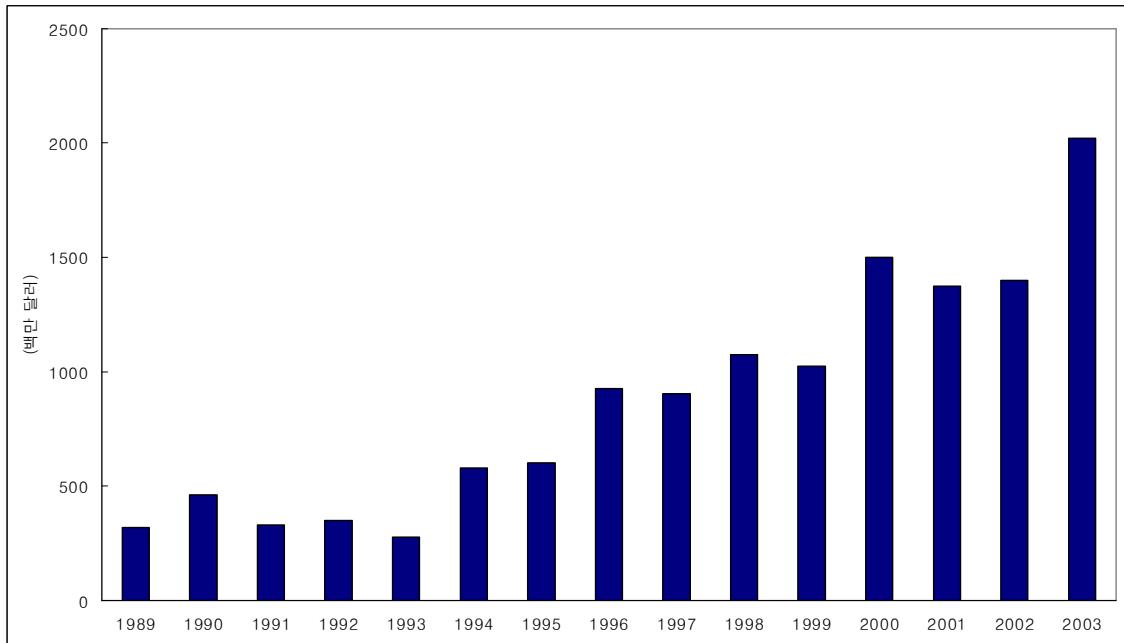
- **1961년~2006년까지 캄보디아는 44.3억 달러, 라오스는 57.5억 달러를 국제원조 재원으로 조달하였음²²⁾**
 - 캄보디아는 2005년에 국제 ODA 자금으로 1.4억 달러를 지원 받았으며, 라오스는 0.98억 달러를 지원 받았음
 - 베트남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대베트남 국제원조 지원이 급증하는 추세로 2005년도 베트남의 11.5억 달러에 비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제재원 조달 규모는 극히 미비한 수준임
 -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년), 개발 후기의 친서방 정책 시기(1993년 이후)로 구분됨

21)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로 IMF, 세계은행, ADB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융자와 일부를 포함한 서방국가로부터의 ODA 도입이 사실상 규제되었으나, 19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가 결정된 이후, 서방과 관계가 개선됨

22) 다자간 기구 지원+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양자간 지원+非DAC 국가의 양자간 지원액을 합한 ODA 자금의 총액임

< 베트남의 국제공적자본(ODA) 조달 현황 >



자료 : UNDP, *Vietnam : Development Cooperation*, 각년호 및 UNDP, *Overview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Vietnam 2004* 참조

< 베트남의 주요 ODA 원조 조달 사례 >

(단위 : 백만 달러)

	총 ODA	Loans(양허성 차관)	Grants(증여)	비율(%)
일본	7471	6457	1013	40.8
세계은행	5111	5022	89	27.9
아시아개발은행	3507	3391	115	19.2
프랑스	749	676	73	4.1
독일	565	288	277	3.1
덴마크	473	8	465	2.6
스위스	413	145	268	2.3
총계	18289	15987	2300	100

자료 : 베트남 기획 투자부(MPI), 2004 www.dad.mpi.gov.vn

< 2005년 국가별 국제 ODA 자금 지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소계	총계
AsDF	전체	308.0	92.9	27.2	0.0	428.1	1,518.9
	(기타)	(71.9%)	(21.7%)	(6.4%)	(0.0%)	(28.2%)	
EC	전체	30.6	4.6	2.1	1.0	38.3	10,992.6
		(79.9%)	(12.0%)	(0.0%)	(0.0%)	(0.3%)	
	투자 확대 지원	0.7	2.1	0.6	1.0	4.4	6,392.3
		(15.9%)	(47.7%)	(13.6%)	(22.7%)	(0.1%)	
	분야별 개 발 지원	19.9	0.0	0.0	0.0	19.9	1,081.0
	(100.0%)	(0.0%)	(0.0%)	(0.0%)	(1.8%)		
기타		9.9	2.5	1.5	0.0	13.9	3,519.3
		(71.2%)	(18.0%)	(10.8%)	(0.0%)	(0.4%)	
IFAD	전체	0.0	0.0	18.0	29.3	47.3	411.5
	(기타)	(0.0%)	(0.0%)	(38.1%)	(61.9%)	(11.5%)	
UNICEF	전체	5.9	5.6	2.2	15.8	29.5	738.3
	(기타)	(20.0%)	(19.0%)	(7.5%)	(53.6%)	(4.0%)	
IDA (world Bank)	전체	813.2	38.0	48.4	0.0	899.6	8,504.0
		(90.4%)	(4.2%)	(5.4%)	(0.0%)	(10.6%)	
	투자 확대 지원	581.4	38.0	38.4	0.0	657.8	3,388.1
		(88.4%)	(5.8%)	(5.8%)	(0.0%)	(19.4%)	
기타	231.9	0.0	10.0	0.0	241.9	5,116.0	
	(95.9%)	(0.0%)	(4.1%)	(0.0%)	(4.7%)		
UNAIDS	전체	0.3	0.5	0.3	1.1	2.2	124.3
	(기타)	(13.6%)	(22.7%)	(13.6%)	(50.0%)	(1.8%)	
ALL	전체	1,158.0	141.6	98.2	47.2	1,445.0	25,823.4
		(80.1%)	(9.8%)	(6.8%)	(3.3%)	(5.6%)	
	투자 확대 지원	582.1	40.1	39.0	1.0	662.2	9,780.4
		(87.9%)	(6.1%)	(5.9%)	(0.2%)	(6.8%)	
	분야별 개 발 지원	19.9	0.0	0.0	0.0	19.9	1,231.2
(100.0%)		(0.0%)	(0.0%)	(0.0%)	(1.8%)		
기타	556.0	101.5	59.2	46.2	762.9	14,350.9	
	(72.9%)	(13.3%)	(7.8%)	(6.1%)	(6.7%)		

주1. 소계의 () : 총계 중 소계가 차지하는 비중

주2. 국가별 () : 소계 중 각 국가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AsDF : Asian Development Fund(아시아개발기금), EC : European Commission(유럽위원회)

IFAD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UNICEFF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국제연합아동기금)

UNAIDS : United Nation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유엔에이즈계획)

자료: OECD Data(<http://www.oecd.org/statsportal/>)

3. 북한의 국제원조 재원 조달 현황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예상 분야

○ 북한의 국제원조 재원 조달 현황

- 북한은 다자간 기구를 통하여 2.3억 달러와 국가별 지원을 통해 5.09억 달러로 총액 7.39억 달러의 공적 원조를 조달하였음
 - 북한의 국제 재원 조달(2000~2005년)은 다자간 기구를 통하여 2억 3,322만 달러와 국가별 지원(특히 미국)을 통해 5억 900만 달러로 미비한 상태임
 - 특히 북한은 90년대 수해 복구 및 기근해소를 위한 국제식량지원 프로그램(WFP: World Food Program)의 지원 증가로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해서 약 25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음²³⁾
 - 다만, 북한의 국제원조 재원 조달은 국제기구에는 가입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EC와 빈곤퇴치 및 교육지원을 위한 유엔인구기금(UNFPA) 등에 제한된 지원을 받았음
 - 이는 북한의 북미·북일 관계의 정체와 국제무역·금융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제약 요건뿐만 아니라, 국제지원 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체제 정비의 미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23)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WP 07-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p. 12, p. 38 Table A.3

< 북한의 국제기구별 인도적 원조 자금 수여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원조요청지원 (Within appeal)	특별 지원(Outside appeal)				
	다자간*	양자간	UN Agencies	NGOs**	기타	총액
1996 -97	34.4	11.3	0.0	4.7	0.0	50.4
1997 -98	158.4	105.8	1.8	26.5	0.0	292.5
1998	215.9	92.1	0.0	27.2	0.0	335.1
1999	189.9	41.6	0.0	4.3	0.0	235.9
2000	153.1	58.6	0.1	12.5	0.0	224.2
2001	248.0	61.2	1.5	66.8	0.2	377.6
2002	220.0 ^a	79.2	3.0	58.6	0.0	360.8
2003	133.1	9.6	1.6	42.3	0.0	186.7
2004	151.5	121.4	2.2	24.8	0.6	300.5
2005b	0.0	61.1	0.7	1.8	0.0	63.6
Total	1,504.2	641.9	10.9	269.4	0.8	2,427.2

주: * UN을 통한 지원 액수임, ** 적십자의 지원을 포함한 액수임

a. 세계식량프로그램(WFP: World Food Program)에서 지원한 0.99억 달러를 포함한 금액임

b. 2005년의 양자간을 통한 지원 금액은 UN-OCHA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WFP 지원 금액을 합산

※ 중국의 지원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몇몇 양자간 지원은 UN이나 NGO를 통해 지원한 금액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WFP (2006).; UNCTAD World Development Report.;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WP 07-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p. 38에서 재인용

○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예상 분야

- 국제기구를 통해 조달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

- 국제 재원을 용도별로 분류할 경우, 우선적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에 42.5%, 사회간접 시설에 22.5%, 농수산·임업 등의 생산 분야에 15.0% 규모의 재원 조달 및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제 재원의 국가별 지원 사례: 용도별 분류 > 24)

(단위: 억 달러)

사례 (지원연도)	지원액 및 비율	사회간접 시설 및 서비스 구축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생산분야 (Production Sectors)	복합 현안 문제 해결	물품 지원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기타	계
EU의 아시아 지원 (2006)	지원액	4.45	0.68	1.00	1.63	0.29	0.26	8.29
	비율	55%	8%	12%	19%	3%	3%	100%
중국 ODA지원 (1980-2004)	지원액	118.1	228.2	115.7	49.1	10	2	523.1
	비율	22.5%	43.4%	22%	9.3%	1.9%	0.4%	100%
베트남 ODA지원 (1975-2004)	지원액	55.4	104	34.9	17.8	24.3	1.1	237.5
	비율	22.6%	42.4%	14.3%	7.3%	9.9%	0.5%	100%

주: 사회간접시설 및 서비스 구축(교육, 보건 위생, 정부·시민사회 지원, 수자원 정비),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생산 분야(농, 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 관광 및 무역 규제와 정책), 복합현안 문제해결(환경보호, 여성지원 등), 물품 지원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예산 지원, 식량 지원 등), 기타(응급 지원 및 재건)

자료: OECD Data(<http://www.oecd.org/statsportal/>)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4) 국제 재원의 용도별 분류에 관해서는 여타 재원은 사용처에 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를 통해 지원한 ODA 자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III. 국제 자금 조달의 단계별 추진방안 및 선결 조건

○ 국제 재원 조달의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기** : 북한경제 회생의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과정
 - 국제기구 가입 前의 다자간 특별신탁기금의 원조 재원 조달을 추진
 - (선결과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0.3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이행 합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단계적 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 나아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2단계) 북한 경제 활성화기** : 북한 경제안정과 초기 활성화 과정
 -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가입 後, 세계은행(특히, 경제 회생 초기단계에서의 IDA 활용)과 선진국의 공적원조 재원 조달을 중심으로 추진²⁵⁾
 - (선결과제) 미국의 발언권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여야만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또한 각종 대북지원 조치들이 가능할 것임

- **(3단계) 북한 경제발전 가속화기** : 향상된 북한의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 세계은행(특히, 경제발전 가속화 단계에서의 IBRD)과 선진국의 공적원조 확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입 추진
 - (선결과제) 북한의 경제 실적의 가속화 정도가 지원 금액 확대 및 FDI 증대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발전 가속화 방안 모색

25) 베트남은 1995년 1월 WTO 성립과 가맹신청 후, 12년에 걸친 2국간 교섭 및 다국간 협의를 통해 2006년 11월 7일 가맹승인을 얻어 150번째 가맹국이 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15년이 걸렸음. 다만 북한의 경우, 북핵 해결 후에는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교섭을 통해 국제기구 가입 지원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음

○ 선결 조건

- 첫째, 북한은 국제 무역(WTO)·금융(IMF)체제에 가입하여 세계 시장질서에 편입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미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여타 선진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필요
- 따라서 북한도 북핵 합의 이행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베트남의 성공요인이었음에 유의해야 함²⁶⁾
- 미국의 발언권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북미관계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여야만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또한 각종 대북지원 조치들이 가능할 것임²⁷⁾

- 둘째, 북한 당국은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함

- 국제 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의 지원 조건이 과거 '안보 중심'에서 '국제 규범 준수'로 변하고 있기 때문임
- 개발 원조 시 수혜국 정부에 대한 국제 규범 적용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으며, 국제 규범으로서 경제적 필요, 인권 준수 상황, 원조 효율성에 대한 전망, 원조 과정, 원조 공여국의 수혜국 정부에 대한 구속력 여부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원조 수혜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규범의 준수와 관련, 현재 경제적 필요 사항 이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제고해야 함
-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개발원조 및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행동 준칙의 능력을 증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

- 셋째, 북한은 보다 많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6) 자금 수혜국가(수원국)에서 자국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의식이 결여돼 원조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대외원조의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임

27) 베트남은 지속적인 대미관계 개선노력으로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2002년 미 의회의 정상무역관계(NTR) 승인, 2006년 11월 WTO 가입 승인으로 각광받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국제 재원 사용처, 전략적 목표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또한 경험 활성화 등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원 조달의 우선 순위를 점검하고 재원 사용 내역에 관해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 지원에 호의적인 국가 및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적 다자 연대 경제지원 정책을 유도해야 함
 -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원조의 활용 등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급선무임
 - 향후 대북 경제 지원 가능 영역은 양국간·다국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향후 북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전망되는 영역들에 관한 우선 순위 설정
 - 우선적으로, ① 경제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 ② 재난 방지 및 환경 보호에 주력하며, 북한과의 신뢰 유지·확보
 - 나아가, ③ 농업부문 개혁 및 ④ 현존하는 산업 복귀와 새로운 산업 개발 방안의 제안 및 공동 사업의 추진
 - 마지막으로, ⑤ 전력, 철도, 항만, 통신,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등 인프라 개발²⁸⁾
 -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체제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공적 지원 제공자에게 보증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넷째, 북한은 지원 공여기관(국가)의 사후 검증 및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원조 과정에서 공여국의 평가 결과, 기존 공여된 재원을 활용한 경제 실적 개선 효과가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계속 지원 또는 증액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국제사회의 규범, 행동 준칙을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

28) 구체적 선결 과제 및 추진 과제에 관해서는, 홍순직·김영근·이해정, “북한 경제 회생의 핵심 과제: 베트남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주평』 07-37(통권 제268호),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1-25쪽을 참조

- 특히 북한의 경제 실적 평가가 지원액의 증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경협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북한 경제 실적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지원의 유지·확대를 도모
- 또한, 대북 경제 지원 가능 영역은 양국간·다국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북한은 향후 북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전망되는 영역들에 관해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함 **HRI**

김 영 근 연구위원 (☎ 3669-4112, kimyg@hri.co.kr)

< 별첨 1 >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지원조건

금융기구	가입조건	지원조건 (1인당 GNP)	지원내용
세계 은행 그룹	IBRD	- IMF 회원국만이 가입 가능 · 가입 결의안이 총회투표로 채택되면 가입 예정국은 출자주식을 인수하고 IBRD에 자본금이 되는 출자금의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됨 · 가입시 사회보장제도, 교육, 건강 등 사회지표를 세계은행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5,445 달러 이하 IDA자금수혜 제외국 금리: 차입금리 +0.75% 상환기간: 12-15년
	IDA	- IBRD 회원국만이 가입 가능 · 즉, IMF와 IBRD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만으로 자격 제한 · IBRD에서의 회원국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는 경우 IDA에서도 자동적으로 회원국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됨	925 달러 이하 금리: 없음 기간: 35-40년
IMF	- 특별한 가입제한은 없으나, 가입시 모든 거시 및 미시 경제통계를 IMF에 제공해야 함 -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세계은행과 협의하여 거시경제 전반을 포함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	925달러 이하	확대구조조정자금(ESAF) 지원 금리: 0.5% 상환기간: 10년(5년거치 5년상환)
ADB	- UN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사회간접자본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 - 그밖의 아·태지역 국가 - UN 또는 UN의 전문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선진국 - ADB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총회의 찬성을 거쳐 가입희망국에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고 해당금액을 출자해야 정식회원국이 됨	A그룹: 695달러 미만 B 그룹 : 866-1,618 달러 미만 C그룹 2,017 달러 이상	A그룹:아시아개발기금(ADF)자금 우선 수혜 B그룹:일반채원 및 ADF자금수혜 가능 C그룹:일반채원 자금 수혜 가능 금리:무이자(단 수수료 연 1%) 상환기간:A그룹 40년 B그룹 35년(거치기간 10년 포함)

주: 1)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08 달러(한국은행 추정치)로 남한의 1/17수준임

2) 세계은행의 산하기관으로서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있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IBRD나 IDA의 양허성 지원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칙에 따라 융자가 이루어짐

자료: 이상준·김원배·이문원 외, 『북한의 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4년.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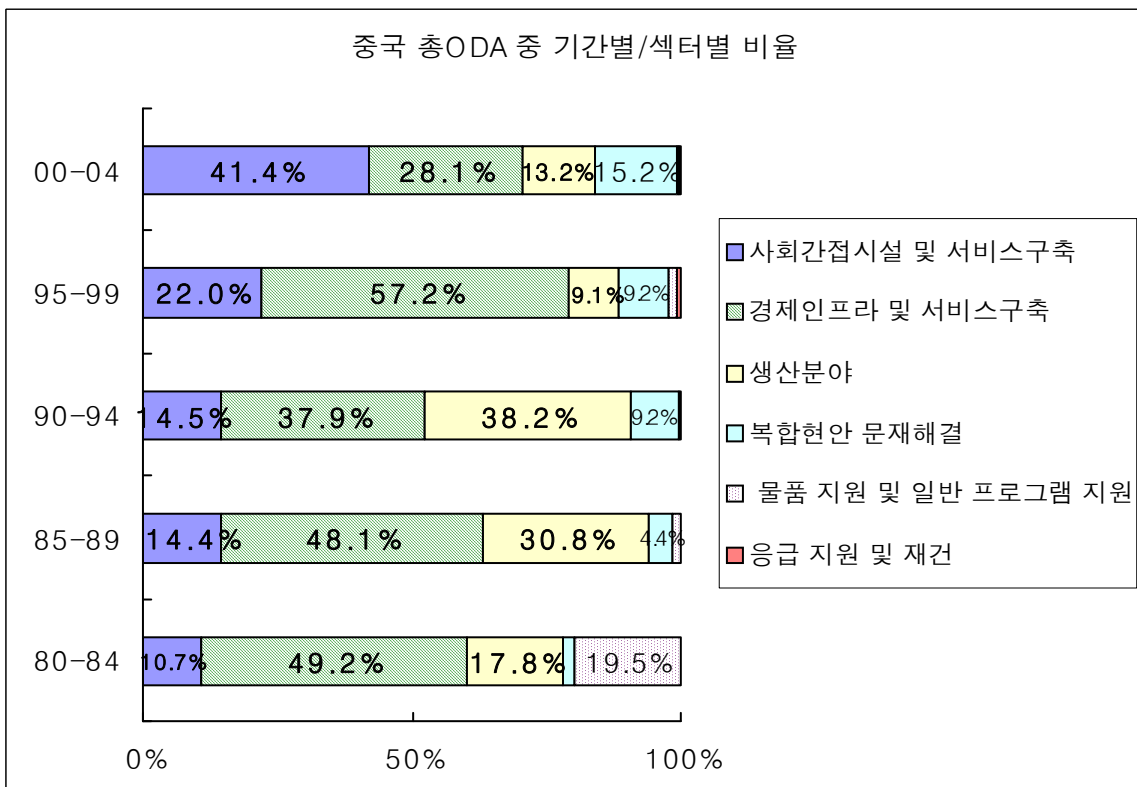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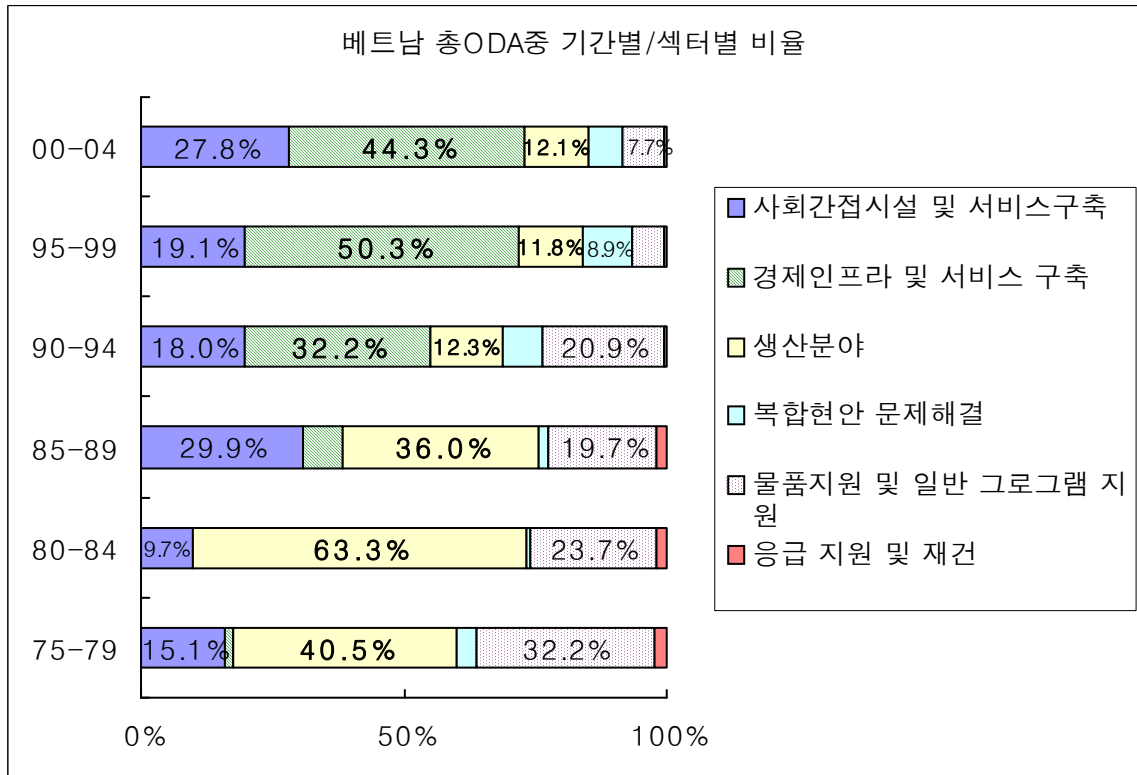
< 별첨 2 > 정부가 밝힌 청구권자금 사용처

(단위: 만 달러)

산업	사업명	무상자금	유상자금	합계
사회간접자 본 및 기타 서비스	소양강댐 건설		2161	2161
	경부고속도로 건설		689	689
	철도시설 개량		2027	2027
	해운진흥		817	817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178	178
	금강유역개발			73
	금강홍수에·경보시설	60		60
	대청댐 타당성 조사			60
	소계	603	8397	9000
광공업	포항제철 공장 건설	3080	8868	11948
	중소기업 육성		2223	2223
	원자재 도입	13282		13282
	소계	16426	11372	(27799)
농림	농업용수 개발	1642		1642)
	농업기계화	652		
	농업증산	605	231	
	축산장려	185		
	농업시험 연구	304		
	소계	3665	231	(3886)
수산	수산진흥사업	1071		1071
	어선도입 건조 및 개량	1646		1646
	소계			(2718)
과학기술 개발	학교실험실습시설	586		586
	서울대병원 의료시설 도입	12		12
	해양실습선 건조	669		669
	기상예보시설	173		173
	KIST연구시설	268		268
	소계	2013		(2013)
기타	청산계정 및 은행수수료	4586		4586
총계		30000	20000	(50000)

자료: 경제기획원(현재정경제부), 『청구권자금백서』 (재정경제부 문서보관소), 1976년.

< 별첨 3 > 중국과 베트남의 총ODA중 기간별/섹터별 비율



자료: OECD Data(<http://www.oecd.org/statsportal/>)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국내물가 불안한 양상

-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7.8% 상승(전월대비 1.2% 상승)하는 등 국내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의 '10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자료에 의하면 원재료 가격(전월대비 2.4%)은 곡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중간재 가격(0.9%)도 주요 생산업체 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다만 최종재는 공산품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추석 이후 전반적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6% 상승하여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자물가도 점차적으로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4)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2.9	4.5	7.1	5.3	8.5	8.4	-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2.0	-8.6	-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9.8	-
		수출	12.0	14.4	16.3	13.8	14.7	14.1	9.6	-0.9	24.2
	공급	산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0.3	-
		취업지수 (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62	2,375
		실업률 (%)	3.7	3.5	3.3	3.2	3.6	3.2	3.1	3.0	3.0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4	7.0	-2.2	27.2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4	61	-17	0.3	45	24	-	
	무역수지(억\$)	232	161	25	75	24	52	48	24	2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5	2.2	2.1	2.4	2.3	2.3	3.0	
	생산자물가	2.1	2.3	3.1	2.0	1.8	2.5	2.7	2.1	3.4	
	생산자재물가	3.9	4.8	5.8	1.8	2.1	3.3	2.5	4.7	7.8	
	최종재물가	0.3	0.5	0.6	0.4	0.3	1.1	0.6	1.2	1.6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의 급등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 **금리**: 미국의 신용경색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이 2008년 GDP성장률 하향 조정 및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수요 증대 등으로 전주말 대비 하락 (국채 10년물 : 4.17→4.01)
- **환율**: 달러화는 미연준의 2008년 GDP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및 추가금리 인하 기대 증대 등으로 유로화 엔화에 대해 약세 시현 (\$/€ : 1.4662→1.4850, ¥/\$: 110.7→108.5)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큰 폭 하락, 원화 및 금리 급등

- **주가**: 미 경기 둔화 및 중국 건축 우려 등 글로벌 악재가 상존하는 가운데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 지속 및 프로그램 매물 영향으로 큰 폭 하락 (1,926.2→1,772.9)
- **금리**: 은행권의 CD 및 은행채 발행 확대 등으로 국고채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스왑베이스스 급등에 따른 은행권의 국채선물 손절매 등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대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46→5.62%)
- **환율**: 미국발 신용경색 가능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역외세력의 달러화 매수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관련 송금 수요 영향으로 큰 폭 상승 (917.4→930.6원)

○ (전망)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 상존으로 주가의 변동성 확대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4	3/4	4/4	1/4	2/4	3/4	11.16	11.23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926.2	1,772.9
	국고채3년(%)	4.92	4.57	4.92	4.76	5.26	5.46	5.46	5.62
	원/달러	948.9	946.2	929.8	940.9	923.8	915.1	917.4	930.6
해외	DOW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177	12,799
	Nikkei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155	14,889
	미국채10년(%)	5.14	4.63	4.70	4.57	5.02	4.59	4.17	4.01
	일국채10년(%)	1.93	1.68	1.69	1.60	1.88	1.69	1.48	1.43
	달러/유로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662	1.4850
	엔/달러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08	108.45
	두바이(\$/바렐)	67.17	57.33	56.71	63.12	66.42	76.64	85.01	88.9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22) 기준